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과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지인** · 이소연***

초 록

본 연구는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 그리고 목격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23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상관분석, Kruskal-Wallis와 Mann-Whitney U 검정, 이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 즉, 포털 사이트보다는 SNS에서 악성댓글을 목격한 경우에 악성댓글 참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중학생의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높은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악성댓글 목격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내적 변인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악성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악성댓글 피해 예방 교육이나 제도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악성댓글 참여, 악성댓글 목격 양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석사, 주저자, maru2259@hanmail.net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leesy@sm.ac.kr

I. 서 론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한국인터넷진흥원, 2017)에 따르면 10대 전체인 504만 1천 명이(100.0%)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0대의 93.9%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대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015년 14.5시간에서 2016년 15.4시간으로 나타나(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집이나 PC방에서만 인터넷을 했다면 현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0대의 인터넷 이용목적 중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 느낌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뜻하는 커뮤니케이션이 95.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이는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이버 범죄와 일탈 등의 사회문제(이성식, 2009), 악성댓글과 비방 등 부정적인 역기능도 초래되고 있다(손영란, 박은아, 2010).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5,684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2015년 1만5,043건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만4,908건으로 나타나(이창수, 2017) 사이버 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이버 폭력 유형에 해당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이중에서도 댓글란을 통해 특정 대상을 욕하거나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일컫는 악성댓글의 가해,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특히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이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초, 중, 고, 대학생 집단 중 중학생 집단의 악성댓글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라, 이정윤, 2010).

더욱이 미디어 발달로 매체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에 쉽게 노출되거나 참여할 수 있는데다가,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맺는 관계의 의미를 현실에서 맺는 관계의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은 현실보다 더욱 거침없고 쉽게 표출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느낄 수 있

는 감정과 동일하거나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Patchin & Hinduja, 2006; Talbert & Aoyama, 2010). 실제로도 청소년들은 악성댓글 피해를 경험한 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Bayram, Yuksel, Adem, Sirri & Sevim, 2012) 분노, 외로움, 좌절감, 무기력함 등의 정서적 문제를 호소했다(정여주, 김동일, 2012).

이러한 악성댓글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악성댓글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기초한 개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악성댓글 목적 양상 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중 악성댓글 목적 양상이 악성댓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반복적인 악성댓글 목적은 악성댓글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모델링(modeling)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Bandura & Robert, 1973).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청소년은 비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가진 자와 접촉을 많이 할수록, 비행 행동의 모델을 모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수록, 비행 행동의 결과로 인해 스스로 혹은 타인의 반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록, 그리고 비행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정의를 가질수록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행 행동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유순화, 정규석, 2003). 또한, 청소년이 기존 매체를 통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는 플레이밍을 자주 접할수록 플레이밍을 시도해보려는 의지가 강해진다고 하였다(심재웅, 김진희, 2013; O'Sullivan, Patrick & Flanagan, 2003). 즉,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악성댓글에 노출될수록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이를 학습하고 악성댓글 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악성댓글의 목적과 참여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정백, 2010)에서는 높은 악성댓글 목적 정도가 낮은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연령에 따른 발달 차이와 더불어 악성댓글을 목격한 빈도 보다는

악성댓글 목적의 양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즉, 단순히 악성댓글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지를 나타내는 목적의 정도보다 악성댓글을 목격한 기간,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과 그 이용 정도, 악성댓글 처벌에 대한 인식, 목격한 악성 댓글의 내용, 목격한 악성댓글의 피해 대상과 같은 악성댓글 목적의 양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악성댓글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지를 묻는 악성댓글 목적의 정도만을 측정하였다(심재웅, 김진희, 2013; 정백,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악성댓글 목적의 정도만이 아닌 악성댓글 목적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악성댓글 목적 양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첫째, 관찰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자가 모델의 행동에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러한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더 크다(Bandura, 1977). 즉, 악성댓글을 자주, 오랫동안 목격할수록 목격자는 악성댓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는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악성댓글 목적 유무, 악성댓글의 목적 기간, 악성댓글 목적의 정도 등이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모델링(modeling)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모델의 특성, 관찰자의 특성, 행동과 관련된 보상결과가 있다(Bandura, 1977). 모델의 특성은 모델을 모방할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데, 모델의 나이, 성, 지위, 명예, 행동 유형 등 자신과 유사하다고 여기는 대상에게서 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일수록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를 익숙하게 느낄 수 있으며 모델의 행동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과 그 곳을 이용하는 정도가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중 모델의 특정 행동이 보상되거나 처벌되는 것에 대한 관찰은 그러한 행동이 모방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은 내적 및 외적 통제 때문에 규범에 동조하며 통제가 결여된 사람들은 일탈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오윤성, 2001), 악성댓글을 통제하는 처벌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 악성댓글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악성댓글 처벌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청소년이 사이버범죄 의도가 낮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이성식, 2012). 즉, 악성댓글 처벌에 대한 인식에 따라 악성댓글

참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가상공간의 특정집단에 소속된다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icher, Levine & Gordijn, 1998). 악성댓글도 집단 간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정체성에 따라 그에 동조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시도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이성식, 2009). 따라서 어떠한 내용의 악성댓글을 목격했는지(악성댓글의 내용), 누구를 향한 악성댓글인지(악성댓글 피해 대상)에 따라 동조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이는 악성댓글 참여로까지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소년의 악성댓글 참여 동기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26.4%), ‘스트레스 해소’(12.9%), ‘내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11.5%), ‘그냥 재미로’(10.3%)가 차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이성식, 2009). 이는 악성댓글 참여가 학습에 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악성댓글 참여는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공격행위이며 이는 개인내적인 특성에 의해 표출되는 정도와 방식이 다를 것이므로 악성댓글 참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내적 변인의 영향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악성댓글을 포함한 사이버 언어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공격성과 충동성이 보고되었다(김재휘, 김지호, 2002; 성동규 외, 2006; 조아라, 이정윤, 2010). 또한 악성댓글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그냥 재미로’ 악성댓글을 작성한다는 의견이 악성댓글 참여 동기로 높게 나타났는데(이성식, 2009; 조아라, 이정윤, 2010), 이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자극추구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신체적인 폭력 행위를 비롯해 언어적 상해와 심리적인 상해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행위와 그런 행동을 하려는 욕구 경향으로 정의되는 공격성은 악성댓글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생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이 비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보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라, 이정윤, 2010). 또한 현실에서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고(Suler, 1996),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 집단보다 공격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ontag, Graber & Clemans, 2011). 현실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억제가 풀리는 탈억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설인자, 김호영, 2002). 더욱이 비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통제하고 있던 공격성을 표출하기 쉬워지고 내재된 공격성의 정도에 따라 표출되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성동규 외, 2006).

한편,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의도적으로 또래 간 관계를 조작하여 손상을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Crick & Grotpeter, 1995).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지만 구체적인 형태가 다르므로 구분지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공격성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에 의한 활동보다는 즉각적인 판단이나 내적 충동에 의해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것과 관련한 성격 특질인 충동성도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사이버 폭력에 관한 국외연구들에서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특성으로 충동성이 제시되었으며(Berarducci, 2009; Baier, 2007), 충동성과 악성댓글 참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충동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조아라, 이정윤, 2010).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에 대한 욕구와 경험을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Zuckerman, 1994)인 자극추구성향이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접촉이 더욱 강해지며(노웅철, 2005), 자극추구성향은 외현적인 행동문제와 관련되고(White, Lavouvie & Bates, 1985), 무모한 행동을 촉발시키며(Arnett, 1996), 청소년의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양돈규, 2000). 또한 청소년의 악성댓글 참여 동기 중 ‘그냥 재미로’(10.3%)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극추구성향이 동기로 작용해 악성댓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악성댓글을 비롯한 사이버 언어폭력 해결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 처벌 강화 등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뚜렷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김재휘, 김연정, 2004). 이는 악성댓글이 일어나는 상황과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악성댓글 목격이 참여로 이어지는 상황을 탐색하고 파악한 환경적 원인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통제보다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심리에 기초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황상민, 2004). 관찰학습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관찰자의 개인내적 특성은 어떠한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모델링(modeling)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즉, 악성댓글을 목격한 사람 모두가 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내적인 특성에 따라 악성댓글 참여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이 낮은 사람이 악성댓글을 목격한다면 이러한 성향이 높은 사람이 목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악성댓글 목격 양상이 어떠한 개인내적 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악성댓글 참여도를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악성댓글 참여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악성댓글과 그 악영향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변인들을 악성댓글 목격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악성댓글 목격 양상에는 악성댓글 목격의 유무, 악성댓글 목격 기간, 악성댓글 목격 정도,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과 그 이용 정도, 악성댓글 처벌에 대한 인식, 목격한 악성댓글의 내용, 목격한 악성댓글의 피해 대상을, 개인내적 변인에는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여 변인들 각각의 영향과 함께 변인들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중학생의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여섯 곳의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2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38)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87	36.6
	여자	151	63.4
학년	1학년	30	12.6
	2학년	112	47.1
	3학년	96	40.3

2. 측정도구

1) 인구사회학적 질문지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질문지는 응답자가 목격한 악성댓글의 내용, 피해대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악성댓글 목격 설문지

(1) 악성댓글 목격의 유무

악성댓글 목격의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악성댓글을 목격한 적이 있다.’의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악성댓글 목적 기간

얼마 동안 악성댓글을 목격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들을 대략 얼마 동안 목격하였나요?’의 문항에 대해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악성댓글 목적 정도

악성댓글 목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백(2010)이 제작한 언어적 폭력의 유형인 욕설, 인신공격, 비방, 집단공격, 신상정보유포를 어느 정도로 목격했는지를 묻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4)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과 그 이용 정도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은 어디인가요?’의 문항에 대해 객관식으로 응답하고,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의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5) 악성댓글 처벌에 대한 인식

악성댓글 처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성식(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악성댓글 참여(작성)로 처벌을 받을 것 같다.”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6) 목격한 악성댓글의 내용

목격한 악성댓글의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악성댓글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안태형, 2013)를 참조하여 악성댓글의 내용을 단순히 재미로 욕설을 하는 댓글, 근거 없는 비방 댓글, 저주나 헐박의 댓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 유언비어를 퍼

뜨리는 댓글로 구분하고 ‘다음 중 목격한 악성댓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목격한 순서대로 써주세요.’의 문항에 대해 객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7) 목격한 악성댓글의 피해 대상과 그 특성

목격한 피해 대상이 누구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안태형, 2013)를 참조하여 악성댓글의 피해 대상을 게시물에 등장하는 대상, 게시물 작성자, 댓글 작성자, 제 3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음 중 목격한 악성댓글의 피해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장 많이 목격한 순서대로 써 주세요.’의 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하였다. 또한 홍성수(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악성댓글 피해 대상의 특성을 성별, 소득수준, 인종, 장애유무로 분류하고 ‘악성댓글 피해 대상의 특성으로 가장 자주 목격한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었는지 표시해 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해 객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기-보고형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 PCS)

중학생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s and Frick(2004)이 제작하고 하문선, 김지현(2013)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자기-보고형 또래 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사용하였다.

이는 외현적 반응적, 외현적 주도적, 관계적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4개의 하위 영역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며 0(전혀 그렇지 않다)점에서부터 3(확실히 그렇다)점으로 표기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각각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전체 공격성 .92, 전체 외현적 공격성 .86, 전체 관계적 공격성 .88이었다. 각 하위요인인 외현적 반응적 공격성은 .77, 외현적 주도적 공격성은 .79, 관계적 반응적 공격성은 .79,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은 .86이었다.

4) NEO-PAS 청소년 성격검사

중학생의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과 안현의(2006)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NEO-PAS 청소년 성격검사 중 충동성 요인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개 문항이며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 요인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5)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

중학생의 자극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와 조윤주(2010)가 국내 청소년들의 실정에 맞는 자극추구성향 척도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는 스릴 및 모험추구(1~8번, 8문항), 일탈적 경험추구(9~14번, 6문항), 새로운 경험추구(15~20번, 6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극추구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전체 자극추구성향 .89이었고, 하위요인인 스릴 및 모험추구는 .90, 일탈적 경험추구는 .80, 새로운 경험추구는 .73이었다.

6) 악성댓글 참여 설문지

플레이밍 참여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이철선(2003)이 제작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악성댓글 참여 경험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재미 삼아 욕설이나 거친 용어를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나는 나의 게시물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공격적인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는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나는 욕설이나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등 악성댓글 참여 경험에 대해 묻는 7개의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에 따른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악성댓글 목적의 하위 요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악성댓글 참여의 총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각각에 대해 Kruskal-Wallis와 Mann-Whitney U 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의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의 총점을 독립 변인으로, 악성댓글 참여의 총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3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을 독립 변인으로, 악성댓글 참여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에 대해 교차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 악성댓글 참여의 상관관계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 악성댓글 참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 악성댓글 참여의 상관분석

(N=238)

하위변인	1	2	3	4	5	6	7	8	9
1. 목적정도	-								
2. 목적기간	.33***	-							
3. 처벌인식	.13	-.12	-						
4. 목격한 곳 이용정도	.29***	.23**	.05	-					
5. 외현적 공격성	.01	-.04	-.05	-.06	-				
6. 관계적 공격성	.01	-.02	-.07	-.06	.74***	-			
7. 충동성	.13	.10	-.01	.21**	.33***	.25***	-		
8. 자극추구 성향	.14*	.06	-.05	.07	.30***	.24***	.23***	-	
9. 악성댓글 참여	.22**	.17*	-.01	.18**	.25***	.28***	.41***	.29***	-
평균	17.89	22.66	3.93	3.39	9.51	9.18	17.89	53.08	10.17
표준편차	4.39	21.85	1.03	1.25	2.73	2.68	6.51	14.97	4.36

* $p < .05$, ** $p < .01$, *** $p < .001$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악성댓글 참여와 독립변인인 악성댓글 목적 정도($r=.22$, $p<.01$), 악성댓글 목적기간($r=.17$, $p<.05$),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의 이용 정도($r=.18$, $p<.01$), 외현적 공격성($r=.25$, $p<.001$), 관계적 공격성($r=.28$, $p<.001$), 충동성($r=.41$, $p<.001$), 자극추구성향($r=.29$, $p<.001$)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중학생이 악성댓글을 자주, 오랫동안 목격하고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을 자주 이용할수록, 외현적·관계적 공격성과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악성댓글 참여 행동과 관련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

1)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범주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범주변인에 해당하는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 목격한 악성댓글 내용, 목격한 악성댓글의 피해대상에 따른 악성댓글 참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Kruskal-Wallis와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표 4과 같다. 사후분석에 대한 유의확률은 1종 오류의 가능성을 보정하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의 방법을 통해 $p < .0083 (.05/6 = .0083)$ 로 설정하였다.

표 3

중학생의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Kruskal-Wallis 검증

종속변인	집단구분	N	평균순위	χ^2	유의확률
악성댓글 참여	SNS	109	129.02	12.66	3 (.005)
	온라인 커뮤니티	50	103.29		
	포털 사이트	60	96.09		
	기타	8	110.56		

표 4

중학생의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Mann-Whitney U 검증

종속변인	집단구분	N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 U	Z	유의확률
악성댓글 참여	SNS	109	93.50	10192.00	2343.00	-3.18	.001
	포털 사이트	60	69.55	4173.00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범주변인에 따른 악성댓글 참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Kruskal-Wallis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에 따라 악성댓글 참여가 유의미하게 달랐다($\chi^2=12.66$, $p < .01$). Mann-Whitney U 검증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SNS에서 악성댓글을 목격한

경우($p<.001$) 포털 사이트에서 악성댓글을 목격한 경우보다 악성댓글 참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2)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연속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연속 변인에 해당하는 악성댓글 목격 정도, 악성댓글 목격 기간, 악성댓글 처벌에 대한 인식,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의 이용 정도의 총점을 독립 변인으로, 악성댓글 참여의 총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확대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5-1.19 사이 값을, 공차는 .84.95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연속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238$)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β	<i>t</i>	R^2	<i>F</i>
악성댓글 참여	목격정도	.14	.14	1.85	.06	3.30*
	목격기간	.09	.09	1.20		
	처벌인식	-.02	-.01	-.07		
	목격한곳 이용정도	.45	.12	1.72		

* $p<.05$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연속변인이 악성댓글 참여를 설명하는 정도는 6%($F=3.30$, $p<.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표준화 회귀계수를 검토한 결과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속변인은 없었다.

3. 중학생의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

개인내적 변인(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내적 변인 간 다중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확대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12-2.41 사이 값을, 공차는 .42-.89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중학생의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238$)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2	F
악성댓글 참여	외현적 공격성	-.10	-.06	-.67	.23	17.70***
	관계적 공격성	.31	.19	2.25*		
	충동성	.23	.34	5.54***		
	자극추구성향	.06	.19	3.08**		

* $p < .05$, ** $p < .01$, *** $p < .001$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학생의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를 설명하는 정도는 23%($F=17.70$, $p<.001$)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검토한 결과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beta=.19$, $p<.05$), 충동성($\beta=.34$, $p<.001$), 자극추구성향($\beta=.19$, $p<.01$) 이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악성댓글 참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4.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

1)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 중 범주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

악성댓글 목적 양상 중 범주변인(악성댓글을 목격한 곳, 목격한 악성댓글 내용, 목격한 악성댓글의 피해대상)과 개인내적 변인(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내적 변인을 평균을 중심으로 고/저 집단으로 나누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동질성 검증 결과 이원변량분석의 가정을 충족하지 않았다. 또한 악성댓글 목적 양상 중 범주변인을 더미 코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정규성 검증 결과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분석할 수 없다.

2)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 중 연속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

악성댓글 목적 양상 중 연속변인(악성댓글 목적 정도, 악성댓글 목적 기간,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인식,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의 이용정도)과 개인내적 변인(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때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외현적 공격성은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악성댓글 목적 양상 변인과 개인내적 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확대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5-2.04 사이 값을, 공차는 .49-.95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 중 연속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238)

종속 변인	단계	독립변인	<i>b</i>	β	<i>t</i>	R^2	ΔR^2	<i>F</i>
악성 댓글 참여	1	목적정도	.14	.08	1.85 [*]	.06		3.30 [*]
		목적기간	.02	.02	1.20			
		차별인식	-.02	-.01	-.07			
		목적한곳 이용정도	.45	.12	1.72			
	2	목적정도	.10	.09	1.39	.28	.22	10.89 ^{***}
		목적기간	.02	.10	1.45			
		차별인식	.09	.02	.35			
		목적한곳 이용정도	.07	.02	.29			
		관계적 공격성	.47	.22	3.39 ^{**}			
		충동성	.21	.31	4.63 ^{***}			
		자극추구성향	.05	.16	2.57 [*]			
		목적정도	.10	.10	1.44			
	3	목적기간	.02	.08	1.03	.33	.05	4.62 ^{***}
		차별인식	.02	.01	.09			
		목적한곳 이용정도	.05	.01	.19			
		관계적공격성	.31	.14	1.76			
		충동성	.19	.28	4.05 ^{***}			
		자극추구성향	.05	.17	2.58 [*]			
		목적정도 x관계적공격성	.01	.02	.25			
		목적정도 x충동성	.01	.08	1.04			
		목적정도 x자극추구성향	.00	.04	.51			

종속 변인	단계	독립변인	<i>b</i>	β	<i>t</i>	R^2	ΔR^2	<i>F</i>
		목적기간 x관계적공격성	-.01	-.06	-.78			
		목적기간 x충동성	.00	.02	.22			
		목적기간 x자극추구성향	-.00	-.07	-.94			
		차별인식 x관계적공격성	-.28	-.16	-1.93			
		차별인식 x충동성	.07	.10	1.47			
		차별인식 x자극추구성향	.01	.04	.56			
		목적한곳이용정도 x관계적공격성	-.04	-.02	-.27			
		목적한곳이용정도 x충동성	.00	.00	.04			
		목적한곳이용정도 x자극추구성향	-.02	-.07	-.99			

* $p < .05$, ** $p < .01$, *** $p < .001$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3단계에서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 중 연속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악성댓글 참여를 설명하는 정도는 5% ($F=4.62$,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화 회귀계수를 검토한 결과 악성댓글 참여에 대한 충동성($\beta=.28$, $p<.001$)과 자극추구성향($\beta=.17$, $p<.05$)의 개별적인 효과만 나타났으며, 악성댓글 목적 양상 중 연속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은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학생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적 양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 그 중에서도 포털 사이트보다는 SNS에서 악성댓글을 목격한 경우에 악성댓글 참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친한 사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집단내 결속을 두텁게 하는 결속형 매체의 이용 정도가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블로그나 트위터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나 약한 유대에 기초한 교량형 매체의 이용은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창호, 이경상,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SNS 이용 동기 중 사회적 동기가 높고 정보추구 동기는 낮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가 높아진다고 보고된 결과를 기초하였을 때(박재형, 2010), 정보 탐색 목적이 비교적 강한 포털 사이트보다 사회적 교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SNS 사용자가 악성댓글을 목격한 경우 악성댓글 참여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또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이는 포털 사이트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SNS에서 악성댓글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악성댓글 목적 양상 중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을 제외한 악성댓글 목적 기간, 악성댓글 목적 정도,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의 이용정도, 악성댓글 처벌에 대한 인식, 목격한 악성댓글의 내용, 목격한 악성댓글의 피해 대상은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과 나머지 요인들의 차이는 목격자와 악성댓글 간의 관계 유무에 따라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언급했듯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에 따른 악성댓글 참여의 차이는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에서 다른 이용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악성댓글을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목격했는지,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

는지, 악성댓글 처벌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의 악성댓글인지 등 악성댓글을 어디서 어떠한 양상으로 목격하였는지 보다는 목격한 악성댓글의 대상이 자신과 어떠한 관계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악성댓글 피해대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피해대상을 게시물에 등장하는 대상, 게시물 작성자, 댓글 작성자, 제 3의 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목격자와 직접적인 관계 유무를 파악하는 답변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악성댓글을 목격한 곳의 이용정도가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전체 이용 정도만을 측정하였고 목격한 곳에 따른 이용 정도를 구분 짓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둘째, 중학생의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높은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의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공격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재휘, 김지호, 2002; 성동규 외, 2006; 조아라, 이정윤, 2010), 충동성이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치며(Baier, 2007; Berarducci, 2009) 고등학교의 충동성이 높을수록 악성댓글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조아라, 이정윤,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이버 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 집단보다 공격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Sontag, Graber & Clemans, 2011), 이는 현실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억제가 풀리는 탈억제 현상이 일어나 공격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설인자, 김호영, 2002). 더욱이 온라인상에서는 비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통제하고 있던 공격성을 표출하기 쉬워지고 내재된 공격성의 정도에 따라 표출되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성동규 외, 2006). 특히, 관계적 공격성은 뒤에서 이간질을 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등 또래 간 관계를 조작하여 손상을 입히는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Crick & Grotpeter, 1995),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폭력과 관계가 높다는 선행연구(백문숙, 장석진, 2017; 오인수,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외현적 공격성이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관계적 공격성과 달리 외현적 공격성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된다. 즉,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난, 조롱 등을 일삼는 악성댓글의 경우에는 외현적 공격성보다는 관계적 공격성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추구하고 무모한 행동을 촉발시킬 뿐 아니라(노웅철, 2005; Arnett, 1996) 외현적인 행동문제나 비행과 관련되는 경향이 높다(양돈규, 2000; White, Lavouvie & Bates, 1985). 유사하게,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개인이 온라인상에서는 탈억제 현상이 일어나 자극적이고 외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악성댓글을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처음 검증되었다.

셋째, 중학생의 악성댓글 목격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악성댓글 목격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 주목할 점은 악성댓글 목격 양상 중 연속 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개인내적 변인은 2단계와 3단계에서 모두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악성댓글 목격 양상의 연속변인인 목격정도, 목격기간, 처벌인식, 목격한 곳의 이용정도는 2단계에서부터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악성댓글 참여에 있어서 개인내적 변인의 영향이 강력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악성댓글 목격 양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덧붙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비임상 집단이라는 점이 개인내적 변인과 악성댓글 참여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악성댓글을 어떠한 양상으로 목격하였는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이 악성댓글을 목격하는 양상들 중, 어디에서 목격하는지에 따라 악성댓글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포털 사이트보다 SNS상에서의 악성댓글 목격이 악성댓글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인 중 관계적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 성향이 악성댓글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내적 변인의 탐색과 고려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악성댓글에 대한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악성댓글

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악성댓글 피해 예방 교육이나 제도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개인내적 변인은 모두 악성댓글 참여를 높이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악성댓글 목적 양상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내적 변인의 영향을 탐색하여 악성댓글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악성댓글 목적이 악성댓글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성인의 경우 악성댓글 목적이 많을수록 악성댓글 참여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정백, 2010)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청소년기는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발달상 과도기로 비행, 문제행동에 취약한 시기(정유진, 유미숙, 2012)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이 감소하고(김동기, 홍세희, 2007) 충동조절 능력은 향상되므로(이영식, 방양원, 1998) 연령에 따른 개인내적 변인의 발달 차이가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 연구문제가 아닌데다가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t=1.80, p>.05$) 악성댓글 목적 양상과 개인내적 변인이 악성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서 성별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남자 중학생은 게임(42.5%), 여자 중학생은 SNS(60.3%)로 달랐으며,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목적 정도에도 차이가 있는 등($t=-2.97, p<.05$) 남녀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사이버 언어폭력, 악성댓글 참여, 플레이밍 행위가 높다는 결과(이성식, 황지영, 2008; 조아라, 이정운, 2010; 주경희, 최지은, 이성규, 2013)가 보고되었다. 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악성댓글 참여가 높다는 결과(이성식, 2012)가 보고되기도 하여 상반되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악성댓글 참여가 어떤 양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동일, 안현의 (2006). NEO 청소년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4(1), 77-91.
- 김재휘, 김연정 (2004).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적 실재감의 지각과 공격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83-101.
- 김재휘, 김지호 (2002). 인터넷 일탈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3(2), 91-110.
- 노웅철 (2005). **사용자의 특성이 온라인 게임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극 추구성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형 (2010). **SNS이용자의 사이버범죄 인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문숙, 장석진 (201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기 사이버 폭력간의 관계: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3), 199-224. doi:10.21509/KJYS.2017.03.24.3.199
- 설인자, 김호영 (2002).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실태와 대책. **진리논단**, 7, 337-352.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79-129.
- 손영란, 박은아 (2010). 자기노출 및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차이: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15, 155-194.
- 심재웅, 김진희 (2013). 플레이밍(Flaming)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영향 모델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0(4), 51-70.
- 안태형 (2013). 악성댓글의 범위와 유형. **우리말연구**, 32, 109-131.
-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 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오윤성 (2001). 제지이론의 처벌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12, 207-234.
- 오인수 (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doi:10.15703/kjc.15.5.201410.1871
- 유순화, 정규석 (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0(2), 159-214.
- 이성식 (2009).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의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3), 191-212.
- 이성식 (2012).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식처벌의 조건적 억제효과: 세 입장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 21(4), 166-188.
- 이성식, 황지영 (2008). 인터넷사이트 집합적 효율성과 사이버언어폭력. **형사정책연구**, 167-189.
- 이영식, 방양원 (1998). 청소년, 성인의 주의력결핍 과다활동장애. **신경정신의학**, 37(5), 932-941.
- 이창수 (2017.10.24.). “각도가 잘 챙기라”...진화하는 ‘악플러’.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24005365>에서 2017년 7월 20일 인출.
- 이창호, 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259-285.
- 이철선 (2003). 가상공동체에서의 플레이밍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18(1), 3-30.
- 정백 (2010). 익명성과 악성댓글 경험량, 악성댓글 규범성 인식이 악성댓글 게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웹사이트를 악의적 사이트로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6, 345-381. doi: 10.35731/kpca.2010.16.010
- 정여주, 김동일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한국상담학회**, 13(2), 645-663. doi:10.15703/kjc.13.2.201204.645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조윤주 (2010).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17(1), 385-398.
- 정유진, 유미숙 (2012). 한국판 청소년용 공격신념 척도(K-BS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99-417.
- 조아라, 이정윤 (2010).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

- 상담연구, 18(2), 117-131. doi:10.35151/kyci.2010.18.2.008
- 주경희, 최지은, 이성규 (2013). 인터넷 댓글문화에서 플레이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3(2), 47-57.
- 하문선, 김지현 (2013).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2016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홍성수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황상민 (2004).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서울: 21세기북스.
- Albert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doi:10.1037/0033-295x.84.2.191
- Albert Bandura, Robert W. J. (1973). Role of symbolic coding and rehearsal processes in observational lea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1), 122-130. doi:10.1037/h0034205
- Arnett, J. (1996). Sensation seeking, aggressiveness, and adolescent reckless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6), 693-702. doi:10.1016/0191-8869(96)00027-x
- Baier, S. (2007). *A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understanding bullying behavior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Wisconsin-Stout University, Menomonie, Wisconsin, United States.
- Bayram, C., Yuksel, E., Adem, P., Sirri, A., & Sevim, P. (2012). The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 among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cyberbullying, and psychological disharmony in adolescents: An investig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2(2), 646-653.
- Berarducci, L. R. (2009). *Traditional bullying victimization and new cyber bully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yton University, Ohio, United States.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doi:

10.2307/1131945

- Marsee, M. A., Kimon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New Orleans University, Louisiana, United States. doi:10.1037/t06331-000
- O'Sullivan, Patrick B., & Flanagan, Andrew J. (2003). Reconceptualizing 'Flaming' and Other Problematic Messages. *New Media & Society*, 5(1), 69-94. doi: 10.1177/1461444803005001908
- Patchin, J. W., & Hinduja, S.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2), 148-169. doi:10.1177/1541204006286288
- Reicher, S., Levine, M., & Gordijn, E. (1998). More on deindividuation, power relations between groups and the expression of social identity: Three studies on the effects of visibility to the in-group.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7(1), 15-40. doi:10.1111/j.2044-8309.1998.tb01155.x
- Sontag, Lisa M., Graber, Julia A., Clemans, Katherine H. (2011). The Role of Peer Stress and Pubertal Timing on Symptoms of Psychopathology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doi:10.1007/s10964-010-9620-8
- Suler, J. (1996). *The psychology of cyberspace*. Retrieved October 30, 2017, from <http://users.rider.edu/~suler/psycyber/psycyber.html>.
- Talbert, T., & Aoyama, I. (2010). Cyber-bullying internationally increasing: New challenges in technology generation. Baylor University, Waco, Texas, United States.
- White, H. R., Labouvie, E. W., & Bates, M. E.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 197-211. doi:10.1177/0022427885022003002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ness of online malicious comments, aggression, impulsivity and sensation seeking through participation in online malicious commentaries

Kim, Jiin* · Lee, Soye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exposure to malicious online comment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posting malicious online comments amongst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mprised 238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Kruskal-Wallis and Mann-Whitney U tests, two-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posting malicious online comments by middle school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exposure to malicious online comments through SNS than through portal sites. Secondly, higher scores of relational aggression, impulsivity, and sensation seeking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significantly predicted more frequent posting of malicious comments. Thirdly, there was no interactional effect between the exposure to malicious online comments and psychosocial factors. This study explored possible variables that may influence the posting of malicious online comments and specifically verified their effectiveness.

Key Words: participation on online Malicious Comments, witness of online malicious comments, aggression, impulsivity, sensation seeking

투고일: 2019. 9. 16, 심사일: 2019. 11. 1, 심사완료일: 2019. 11. 11

* Sookmyoung Woman's University